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3월 1일**

돌아오지 않는 말씀 사45:14-25

복음을 아는 자는 응답 받습니다. 지속으로 누리고 증거하면 성경과 같은 인생이 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가장 방해를 하는 것은 당연히 복음이며 그래서 복음을 들고 일어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걸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았으니 너무나 이상한 일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상상도 하지 못할 기적을 베풀었으나 그런 것이 그들의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사단에게는 더 더욱 주님을 죽여야 할 이유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로 남미 선교를 잘 다녀 왔습니다.

1. 돌아오지 않는 말씀

1)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는 권세가 말씀 안에 있습니다.
2) 이 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어 세상에 증거를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23절 뒷 부분에,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은 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짐승이 다 그렇게 되고 해도 달도 별도 다 이렇게 됩니다.
3)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요셉은 해와 달과 별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는 노예에서 일약 당대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꼭 같습니다.
4)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면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리고 모든 혀가 맹세하며 멈춥니다. 잘 낫다고 혀를 놀리던 모든 입이 그 자리에서 굳어 버리고 머리를 쳐들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단이 포함됩니다. 사단을 죽이러 오신 그리스도이신데 혀가 멈추고 무릎이 꿇리는 이 일에 어떻게 사단이 예외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 일 것입니다.
5) 오늘 본문에도 돌아오지 않을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다시는 거두시지 않으실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력도 필요 없고 공부를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AI시대가 되면 될수록 믿음이 더 중요해 질 것입니다. 실력은 본래부터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AI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피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6)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전에는 믿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면 이제는 AI 때문에 믿음도 그의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여하튼 믿음과 같은 이런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AI시대가 더 부각을 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돌아가지 않을 말씀이 많습니다. 14절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굴복을

하고 간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복을 하게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17절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8)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고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어느 한 구석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의롭고 정직합니다.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21절 이 일을 예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나 외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9)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돌아갈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며 믿으면 누구나 이런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23절 나의 이 모든 말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거두어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0) 24절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권세입니다.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다 우리에게 종으로 들어와 굴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요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고 하늘 보좌와 통하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11)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언약의 피를 잡고 살면 이런 인생 증거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4번 나옵니다. 짧은 구간에 같은 표현이 4번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내게 올인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12) 그러면 애굽의 소득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종들이 와서 우리에게 굴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욕을 먹지 않을 것이요 의롭다 함을 얻고 그것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3) 그리고 나의 말씀을 잡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모든 무릎이 네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네게 맹세하고 굳어버릴 것이다. 너의 경제가 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요 너의 질병이 그렇게 될 것이며 네게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한 남은 자가 될 것이며 후대를 남길 남길 자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을 살리고 남미 끝까지 가며 정말로 렘넌트와 다민족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14)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누리고 승리하라. 나의 돌아오지 않을 약속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번 듣고 넘어가는 메시지 하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을 잡은 사람은 계속 눈이 열리므로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하나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